

哲學이란 무엇인가? (二)

李晶燮

金: 어적게 말할 날 哲學 아닌가. 이, 다른 原稿가 좀 밀녀서 그 모양 되었네. 요새는 □□□□일세.

金: 그래. 오늘은 哲學의 第二定義를 講筵해야지? Go on! my little professor.

李: 신기한 哲學講筵에 ヒヤカシ는 禁□일세.--나는 昨日에 哲學은 宇宙에 對한 第一 深奧한 說明이라 하얏다. 이제 第二定義에 依하면 哲學은 本質上, 人間精神의 研究라 한다. 이 二個 定義는 一見에 相異한 것 가트나 其實은 相同한 것이다. 何故오 하면, 宇宙 全體가 人間의 精神에 表現되어 있다. 科學, 藝術, 宗教, 道德 할 것 업시다.--人間精神에 表現되어 있다. 그럼으로 人間의 精神研究가 卽 宇宙의 研究가 된다. 그 뿐만 아니라 吾人의 精神은 宇宙의 深奧한 眞理를 探究함에 唯一한 □具이다. 換言하면 吾人의 精神이 如何히 宇宙의 事物을 認識하며 그 認識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明白히 하여서 吾人은 宇宙의 眞正하고 □實한 □□을 알 수 잇을 것이다. 그러면 人間의 精神의 研究라함은 무엇을 意味함인가? 이를 說明하기 爲하여 哲學의 모든 □分--心理學, 論理學, 倫理學, 審美學, 社會學 及 純正哲學의 全□을 一別할 必要가 있다.

(一) 爲先 心理學은 精神生活의 諸法則을 發見하려함이니, 心理學은 實로 哲學의 基本的 學文이라 할 것이다. (二) 論理學은 思考의 形式을 研究하는 學文이다. 論理學은 어저케 概念을 어드며 어저케 判斷하며 어저케 推理하는가 하는 精神的 作用의 諸法則을 設定하여, 正當한 結論과 詭辯을 區別하며 各樣의 推理의 價値를 規定함이니, 이것은 形式論理學에서 研究하는 것이오, 應用論理學에서는 모든 科學이 事物을 實驗 及 觀察하기 爲하여 適用하는 모든 方法을 研究하는 學文이다. 換言하면 一事物을 알기 爲하여 哲人의 精神이 如何한 方法을 適用하는가 하는 그 모든 方法--□合, 分析, 綜合, 歸納法, 演繹法, □驗法, □□ 等--을 研究함이라. 이런 意味 하에서 論理學은 諸科學의 方法을 研究하는 科學이라 하던지 또는 □□히 科學의 科學이라 할

것이다. (三) 倫理는 爲先 良心이 무엇인가를 아려 善과 惡을 區別하여 人間 行動의 方向을 指示하며 몇 개의 普遍的 眞理를 日常生活의 萬□□□에 適用 하려 한다. 그러나 倫理學者는 決코 自己 □意대로 道德의 類型을 規定함이 아니라, 社會環境에 存在한 道德의 □□을 觀察하여 그의 善惡을 研究함이다. 그럼으로 倫理學은 人間의 精神을 人間의 行爲를 指□하는 人間의 精神으로 看做하고 研究하는 學文이다. (四) 審美學은 藝術家가 故意的으로 우리에게 甞기게 하는 特別한 感動을 어찌한 □□에 가지게 되며, 또한 自然은 어찌하야 어떤 □□에 어찌한 感動을 우리에게 주는가함을 研究하는 學文이다. 審美學가는 이 感動을 區分하며 이 感動의 由來와 性質을 研究하며 美, 高尚, □□□□, □的 等を 分析한다. 그럼으로 審美學은 人間의 精神을 一例□者의 精神이라 看做하고 研究하는 學文이다. (五) 社會學은 一例 合重心理學으로 볼 수 있다. 社會學은 社會的 意識이 如何히 社會을 □成한 各 分子의 意識을 支配하는가(뒤케임[뒤르켐]설) 또는 個人의 心理에서 나온 一切 意思가 如何히 模倣의 波로서 全社會 人心에 波及하는가(라르드설) 하는, 要컨대 人類社會의 歷史의 基本要素를 研究하려 한다.

金: 唯物史觀에 依하면.....

李: 그러치. 唯物史觀에 依하면 人間의 意識을 第二位에 두고 精神的 條件을 基本要素라 한다. 그러나 唯物史觀도 人間의 意識을 忽視할 수 업다. 何故오 하면, 器具가 人間의 意識을 決定한다 하지만 具는 人間精神의 產物이다. 이와 가티 社會學도 人間精神을 歷史의 一介 要素로 보지 안을 수 업다. (六) 純正哲學은 物質, 靈魂, 神 等を 研究한다. 物質은 一見에 物理學□의 研究에 屬한 것 가티 보이나, 그러나 物理學者는 物質 그 自體를 研究함이 아니라 熱, 光, 電氣, □體의 均衡, 運動의 □□□에 關한 諸法則을 研究할 뿐이다. 마치 幾何學者가 空間과 空間의 關係는 研究하야도 空間 그 自體의 本質을 研究 아니함과 갓다. 그러다 吾人이 熱이니 光이니 音이니 아는 것은 그것이 吾人의 五官에 觸하야 感覺이 되는 까닭이다. 그럼으로 實在라 함은 이 感覺을 말함이다. 그러면 이 實在的 感覺 뒤에는 머이 잇는가? 이 實在와 精神의 關係는 무엇인가? 純正哲學은 이 實在의 □□의 價値와 能力을 研究하는 것이다. 어찌한 信任을 吾人의 感覺과 認識하는 精神에 두어야할가? 吾人의 精神이 事物 그 自體를 아는가? 이것도 다 純正哲學의 研究에 속하엿다.--이와 가티 物質을 알기 위하야 純正哲學家는 爲先 精神부터 研究한다. 神이라 하는 것도 우리가 知覺하는 物件이 아니라, 그는 精神에서 □出된 것이다. 宇宙의 秩序라든가 宇宙의 始初라든가 □□의 □□을 完全한 理想的에 □□든가 하는 모든 思考로서 神을 만드렷다. 그럼으로 다른 學文보다도 特

히 純正哲學은 精神을 徹底하게 分析하여 研究한다.

이와 가티 哲學의 各 部分을 通하여 哲學을 精神의 研究라는 第二定義가 說明되었다. 簡單히 말하면 이것이다--吾人은 實在 그 自體가 무엇인 것을 모른다. 吾人이 實在에 對하여 안다면 實在가 吾人의 器官에 接觸되어 나는 感覺을 알 뿐이다. 感覺이 卽 實在다. 이 모든 感覺을 十二種에 範疇에 다머 가지고 精神의 綜合力이 一定한 順序로 思考한다함은 이 作用을 말함이라. 結局 吾人이 實在의 存在法則을 안다 함은 人間의 精神이 如何한 法則으로 이 感覺을 結合하는가 함에 歸한다. 哲學은 精神의 研究다. 알었는가?

金: 안 것 갓기도 하고 모른 것 갓기도 하네.

李: 그러기 처음부터 내가 머이라든가! 哲學이란 무엇인가 하는 質問을 發하는 者에게는 哲學을 說明하여야 모른다고 안하든가?

金: 아-! 좀 알아 들었네.